



서울 박진섭 감독

너무 잘 아는 상대 약일까...독일까...

광주-서울, 오늘 서울서 K리그1 2021 5R 격돌 '사령탑 트레이드' 광주 김호영·서울 박진섭 감독 대결 전·현 광주 에이스 격돌...금호고 출신 공격수 기싸움도



광주 김호영 감독



광주와 서울의 흥미로운 사령탑 대결이 펼쳐진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K리그1 2021 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자리를 맞바꾼 광주 김호영 감독과 서울 박진섭 감독의 지략대결에 눈길이 쏠리는 경기다.

김호영 감독은 지난 시즌 자진 사퇴한 최용수 감독에 이어 감독대행으로 서울의 분위기를 반전시키

고였다. 2019시즌 광주의 K리그2 우승을 지휘했던 박진섭 감독은 지난해 K리그1에서 '파이널 A'까지 경험했다.

시즌이 끝난 뒤 두 감독은 공교롭게도 반대로 팀을 바꾸면서 '사령탑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왔다.

잘 아는 상대를 만나 자존심 대결을 벌이게 된 두 사령탑. 김호영 감독은 다시 한번 적지에서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지난 3라운드 대구 원정에서 4골을 몰아치며 4-1 역전극을 연출,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광주는 여세를 몰아 지난 13일 안방에서 '대어' 전북현대 사냥에 나섰다.

전북을 압도하는 공격 축구를 구사한 광주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압박 수비까지 펼치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결정력 싸움에서 밀리며 0-2 패를 기록했다.

후반 28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일류첸코에게 실점을 한 광주는 후반 44분 기록된 한희훈의 자책골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연승에는 실패했지만, 광주는 시즌 초반 K리그1의 '다크호스'로 꼽힌다. 전북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언급되는 울산도 광주의 공세에 진땀 승부를 펼쳤다.

또 0-2 패배에도 좋은 경기를 펼친 임원상과 이

민기는 4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그물망 수비'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광주다운 공격축구로 승리를 쟁기겠다는 각오다.

그라운드에서는 임원상과 나상호의 흥미로운 전현직 광주 에이스 맞대결이 전개된다.

부상에서 돌아온 펠리페가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상은 광주의 에이스로 질주를 펼치고 있다.

임원상과 함께 유스 출신인 엄지성도 무서운 신인으로 진가를 발휘하면서 '엄두마차'가 광주의 신무기로 떠올랐다.

여기에 임원상과 엄지성은 각각 국가대표팀과 올

림픽대표팀의 부름을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올 시즌 서울 유니폼을 입은 나상호가 친정팀과의 대결에 나서게 된다.

역시 광주 유스 출신인 나상호는 지난 2018시즌에는 광주 유니폼을 입고 K리그2 득점왕과 MVP를 차지했다.

금호고를 대표하는 공격수들의 기싸움이 이번 5라운드 승부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주장 완장을 차고 광주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김원식도 이적 후 처음 친정 서울을 상대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빠진 전영오픈 배드민턴 맥빠지겠네

코로나 우려에 40년만에 불참 결정...21일까지 영국서 개최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올해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에 불참한다.

전영오픈에 한국 대표팀이 나가지 않는 것은 1981년 처음 출전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대회인 2021 전영오픈은 17~21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불참을 결정했다"며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포인트도 걸려 있지 않아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영국에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는 것을 우려했다.

대표팀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2021년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 1월 제기됨에 따라 여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아직 배드민턴 국가대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전영오픈은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회다.

기록상으로 한국 대표팀은 1981년부터 전영오픈에 출전했다. 당시 한국체대 대학생이던 황선애가 여자단식 갑작 우승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변방'에 있던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이후 한국은 전영오픈에 꾸준히 출전했고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차례만 제외하고 매년 금메달을 따는 등 세계적인 배드민턴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2017년 여자복식 장예나-이소희가 금메달을 땀고, 지난해 여자복식 이소희-신승찬과 혼합복식 서승재-채유정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대회는 교통사고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모모타 겐토(일본)의 복귀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대표팀은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태국에서 열린 3개 대회에 전원 불참했으나 전영오픈에서 활약을 재개한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덴마크, 인도, 태국, 스페인, 프랑스, 불가리아에서 선수단을 파견한다.

/연합뉴스



4위의 반란...기적같은 우승 삼성생명이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최종 5차전에서 청주 KB를 74-57로 물리쳤다. 1998년 출범한 여자프로농구에서 정규리그 4위 팀이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올해 삼성생명이 최초다. /연합뉴스

'행운' 권순우, ATP 마이애미오픈 본선 직행

본선 진출자 중 기권자 발생

권순우(78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이애미오픈(총상금 429만9205달러) 단식 본선에 직행했다.

권순우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에서 원래 예선을 거치게 돼 있었으나 본선 진출 선수 가운데 기권자가 발생하면서 곧바로 본선부터 뛰게 됐다.

마이애미오픈은 1년에 9차례 열리는 ATP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 가운데 하나다. 4대 메이저

대회 바로 아래 등급에 해당한다.

올해 첫 ATP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로 예정됐던 인디언 웰스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고, 마이애미오픈이 2021시즌 첫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로 막을 올린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1회전 탈락한 권순우는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비엘라첼린저 대회에서 우승했고, 투어 대회에서는 2월 싱가포르오픈 8강이 올해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

메시, 13시즌 연속 20득점 '신기록'

프리메라리가 27R, 우에스카전 멀티골...득점 선두

스페인 프로축구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34·FC바르셀로나)가 두 개의 기록을 동시에 달성하며 팀의 승리까지 이끌었다.

메시는 16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우에스카와 2020-2021 프리메라리가(라리가)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멀티골을 작성하며 팀의 4-1 완승에 앞장섰다.

전반 13분 세르히오 부스케츠의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뽑아낸 그는 후반 45분 팀이 3-1로 앞선 상황에서 켈리풀을 터트려 공격의 시작과 끝을 책임

졌다.

메시의 올 시즌 정규리그 20·21호 골이다.

이로써 메시는 라리가에서 13시즌 연속 20득점을 돌파했는데, 통계 전문 사이트 유폴에 따르면 이 기록을 세운 건 메시가 유일하다.

멀티골을 터트린 메시는 득점 2위 루이스 수아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18골)와 격차를 벌리며 올 시즌 라리가 득점 선두를 지켰다.

더불어 바르셀로나 통산 공식전 최다 출전 타이 기록도 썼다.

이날 경기는 메시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나선 767번째 경기로, 이는 현재 카타르 알 사드의 감독인 사비 에르난데스가 현역 시절 세운 팀 통산 최다 출전 타이 기록이다.

2004-2005시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원클럽 맨'으로 뛴 메시는 한 경기를 더 치르면 사비를 넘어 바르셀로나 소속 공식전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정규리그에서는 이미 509경기를 소화해 사비의 기록(505경기)을 앞지르고 구단 사상 라리가 최다 출전 기록을 썼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앙투안 그리에즈만과 오스카르 밍게사의 추가 골에 힘입어 4골을 몰아치며 최하위 우에스카(승점 20)를 제압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모리타니안, 소울, 웨이 다운
3관	모리타니안, 라자와 마자막 드래곤, 웨이 다운
4관	미션 파서블
5관	미나리, 리스타트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리스타트, 임모나이트
7관 씨네키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하트 로커
8관 씨네키움	모리타니안, 그녀가 사라졌다 유어 아이즈 텔, 톱과 재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